

시인 하기와라 사쿠타로



반짝이는 땅 위에 대가 돌아, ... 대, 대, 대가 돌아.
(‘대(竹)’ “달에게 짓다”에서)

일본의 근대시를 대표하는 시인 하기와라 사쿠타로는 말년을 세타가야에서 보냈습니다. 교과서 등을 통해 그 지은 시의 선렬한 이미지와 리듬에 충격을 받은 분도 많을 것입니다. 사쿠타로는 기존의 전통적인 시의 형식과 리듬에서 벗어나 새로운 표현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시집 “달에게 짓다”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여 시단에 확고한 지위를 확립했습니다.

사쿠타로가 활약한 시대는 새 시대에 대한 이상에 찬풍조와 화양절충 문화가 넘쳤습니다. 그도 사진과 음악, 디자인 등에도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표현에도 도전했습니다. 도시와 새로운 서양 문화를 동경한 청춘 시절부터 이혼과 가정 붕괴를 거친 말년에 이르기까지 사쿠타로의 말과 표현에는 혼란 현실 속에서 굳이 다른 세계를 보려고 한 시인의 강인한 뜻이 느껴집니다. 일상 언어를 사용하면서 언어 이상의 감각을 전달하려 한 그의 시도는 현대시의 흐름에도 통하여 지금도 많은 시인과 작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기와라 사쿠타로 1886~1942년

시인. 군마현 출생. 마에바시 중학교 재학 중일 때부터 ‘문고’, ‘명성’ 등의 저명한 문예지에 단가를 투고. 무로 사이세이의 시에 감동을 받아 시에 입문했으며, 기타하라 하쿠슈가 주재하는 ‘잠보아’에 시가 게재되어 시단에 데뷔. 1917년, 구어자유시를 확립한 시집 “달에게 짓다”를 간행하여 근대시의 한 시대에 획을 그었다. 다른 작품으로 시집 “우울한 고양이”, “순정 소곡집”, “얼음 섬”, 교훈집 “새로운 욕망”, 시론 “시의 원리”, 평론 “일본으로의 회귀”, 단편소설 “고양이 마을” 등이 있다. 1931년에 세타가야구의 시모키타자와로 이주했으며, 다다음 해에 직접 설계하고 지은 다이타의 집에서 죽음을 맞이했다.